

## 치 사

한 해의 다사다난을 슬기롭게 넘어서게 한 서로의 공덕과 이에 담긴 따뜻함이 더없이 든든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22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인 ‘붓 끝에 나투신 부처님’ 전시회는 많은 불자와 미술인에게 훈훈한 열기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공덕 나눔이라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나름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불교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미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형상화 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형상 속에서 형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여래를 보게 된다’는 말씀처럼 미술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 대중들의 마음을 밝혀왔던 불교미술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불교의 정신세계를 투영하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성과 예술성 및 종교성을 구비한 불교미술 작가들은 예술가이자 불법을 흥포하는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년고찰을 수호하는 금강역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맺은 불교미술과의 인연은 천년을 떨어져 산다 해도 구슬을 이은 비단줄과 같습니다. 불교미술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와 미래를 이어주는 비단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미술협회가 해와 같이 밝고, 어둠속을 안내하는 별과 같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신 작가 및 전시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